

고하선생의 정치이념에 대한 재조명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고하의 문화민족주의 이념

고하 송진우선생의 정치이념은 문화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정당다원주의자, 정치현실주의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동안 고하선생의 자유민주주의와 정당다원주의, 그리고 정치현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많이 있었으나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는 일제하 독립운동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족 주체성을 형성하는 방안으로 교육, 언론, 경제발전 등 점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상이다. 고하선생의 이러한 문화민족주의 이념은 선생께서 한일합방에 충격을 받아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방황하다가 새로운 결심으로 동경에 돌아가서 인촌 김성수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게 새로운 행동방향을 제시하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제부터의 광복운동은 과거의 의거(義擧)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한 두 사람 또는 한 두 단체의 광복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집단운동이라야 할 것이다. 둘째, 그 어떤 한 부분을 통한 광복운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등 각 부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 사업을 해야겠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겠고, 동시에 금융기관과 신문, 출판기관을 가져야 한다.¹⁾

고하의 문화민족주의 이념은 이미 1910년경에 형성되어 평생토록 시종일관 이 노선을 유지해왔다.

2. 문화민족주의의 특징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로빈슨(Michael Robinson)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문화민족주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민족주의는 우리나라

1) 고하 송진우선생 전기편찬위원회 편, 『고하 송진우선생전』, (동아일보사 출판부 1965), 50쪽, 김학준, 『고하 송진우 평전』, (동아일보사, 1990), 37쪽에서 재인용.

라 민족주의 사상의 주류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민족주의 정치이념은 조선조 말기 고루한 유교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부패한 지도층을 개혁하려는 독립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론자들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다. 둘째, 문화민족주의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강조하여 엘리트들이 사회개혁에 앞장서서, 이들의 리더쉽 아래 다수 국민들이 민족 주체성의 확립, 올바른 현대적 가치관과 현대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특히 고하선생을 비롯한 문화민족주의자들은 온당치 않은 행동은 그릇된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정신을 바로잡아 놓으면 행동은 자연히 바로 잡힌다는 이념을 가지고 중앙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학교를 설립하여 신교육을 제창하고, 동아일보 창설을 통한 언론 창달 등을 도모하였다. 셋째, 문화민족주의자들은 일제의 탄압,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진영 내 급진주의자들의 오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당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측이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측은 문화민족주의자들의 점진주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1920년대 후반 점진주의 민족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간의 통일전선으로 이루어진 신간회 운동이 실패한 것은 양측이 서로 협력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문화민족주의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하선생을 비롯한 많은 민족주의 인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좁았다.

3.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 운동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 운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서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운동 중 중요한 것만을 들어 보더라도, 중앙학교 설립과 운영, 단군, 세종대왕, 이충무공의 삼성사 건립 기성회 조직, 동아일보 창간,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운동 추진, 문맹퇴치운동 전개, 동아 마라톤대회 창설, 이충무공 유적보존운동, 아산에 현충사 건립, 행주에 권율장군의 기공사(紀功祠) 중수, 단군 성적(聖蹟) 조사 추진, 조선어학회의 새 맞춤법 채택, 평남 강동에 단군릉 수축 기금 모금 등이다.

4. 문화민족주의 재조명의 의의

21세기 초두에 우리들이 문화민족주의 시각에서 고하선생의 정치 이념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그의 문화민족주의가 오늘날의 시대상황에서 더욱 가슴에 와 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가 서로 이질적으로 발전되어 나오고 있다. 이런 슬픈 현실을 생각해 보면 고하선생의 문화 민족주의운동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 과제

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우리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서구 문화의 강한 영향력 속에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동안 경제에만 매달려 우리의 문화가 황폐화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라도 늦지 않다.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의 혜안이 성공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작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로운 문화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은 문화의식이 박약하다는 인상을 버릴 수 없다. 정치인들은 문화가 이 세기의 키워드(keyword)라고 구두선(口頭禪)처럼 말하지만 진심으로 믿는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는 문화가 보채는 아이에게 떡 한 개 떼어주듯 몇 푼 주어 너그러운 아량을 보이는 체면치레용 장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고하선생의 문화민족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오늘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세계화시대에 적응해 나가려면 그의 정치이념을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호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임.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인하대학교 사회대 학장 겸 행정대학원장(사회과학연구소장) 역임.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장.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 <한국 정당정치 이해> (나남, 2001), <북한의 협상스타일> (인하대 출판부, 2005), <比較政治學序說> (崔明교수와 공저)(서울:법문사, 1990).

번역서 : <民主主義理論 序說: 美國 民主主義의 原理> (Robert Dahl,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서울:법문사, 1990).
Party Dynamics in South Korea: The Rise and Fall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 1962-1980, (London: Macmillan, forthcoming).